

문학의 한장면 붓으로 畵하다



김덕용 작 '休-명상'. 고은 시인의 시 '휴식'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말 달렸던 세월 갔다고 끝나지 않는다
다시 말 달릴 세월이 왔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쉬어라
그대 곁에 철쭉꽃도 피어나리라
한숨은 슬픔이 아니다
한숨 내쉬며 실 때
매아침 하늘 속 솔개도 뚝 멈춰 쉬고 있다

진짜배기 휴식일진대 그것은 정신의 절정일 것
-고은 시 '휴식'

'그림, 문학을 그리다' 展
내년 1월 30일까지 문화일보 갤러리

펜으로 써내려간 문학의 한 장면이 붓칠을 더해 그림으로 변신했다. 김푸른 먹선이 구불구불 그려낸 바다와 꽃산. 그 사이로 끊어질 듯 이어지는 김용택 시인의 '내소사 가는 길'은 김범석 화백의 수묵화로 다시 한 번 진면모를 드러낸다. 고은 시인의 시 '휴식'은 서정적인 작가 김덕용의 '休-명상'으로 독자들과 소통한다.

고은 시인의 또 다른 작품 '내일의 노래'는 강승희, 김덕용, 한생곤 화백이 각각 다른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어 비교해보는 재미도 으뜸이다. 김지하 시인의 '화개'도 강승희 김을 노영신씨가 각각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이윤기 작가의 '두물머리'는 민정기 강승희씨가, 박완서 작가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정종미 노영신씨가 각각 시각화했다.

화가의 시선에 따라 하나의 문학이 전혀 다른 장면으로 펼쳐지면서 하얀 종이 위 검은 글자로 구성된 문학과는 울컥거리의 시각적 상상력을 관객들에게 부추긴다. 종이나라가 떠난 <그림, 문학을 그리다>는 문학과 그림의 만남을 추진했다. 책을 펴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시도 병행한다. 11월 23일 첫 번째 서울 문화일보 갤러리(02-3701-5755)에서 오픈한 '가지 않은 길-그림, 문학'을 '그리다'전은 11월 25일~2007년 1월 30일, 2월

1~25일 북촌미술관(02-741-2296), 12월 1~25일 평택 남부문화회관(031-659-4931) 등에서 동반 전시에 들어간다.

고은 김용택 김지하 문태준 신경림 황동규 황지우 등 21명의 시인, 공지영 박완서 서정인 이희수 최인석 황석영 등 21명의 소설가가 빛어낸 문학작품은 김미선 김덕용 류준화 박항률 등 33명 화가의 화필과 만났다.

대산 미당 황순원 문학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엄선한 한국현대 문학 작품 중 시 21편 소설 34편 등 총 55편의 문학작품이 다양한 장르의 그림 99점으로 다시 태어났다.

화가들은 수상작 가운데 평소 좋아하는 문학작품을 선정해 1인당 3점의 작품을 제작했다. 우리 시대 33인 화가와 42인 문인이 조화로운 선율을 빚어낸 붓과 글의 만남이다. 한낱 기호에 불과한 문자를 '의미있는 글'로 만들어 매마른 대지에 애절한 감성을 던져넣은 42명의 화가와 글이 묘사하는 세계를 다양한 상상력으로 캔버스에 그려낸 화가들.

책에 빠져 느꼈던 상상 속 이미지가 33인의 화가가 만들어낸 조화 속 세상과 어떻게 다르지 구경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지연 기자 jgyang@buddhapia.com

고은 김지하 박완서 등 우리시대 대표문인 42인 작품에

김덕용·류준화·박항률 등 화가 33인 다채롭게 붓칠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 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長壽

정국장분말
정국장환
원장/관장

강원도 정선 동강 백운산 앞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 생산한 **재투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 청국장 분말과 환

▶ 청국장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환을 만들 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환은 정선 동강안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네서린 균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수를 이용하여 환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선하는 동강백운산토종입니다.

◆입금계좌 : 농협 315012-51-078352 백승화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환 500g 25,000원
원장 1kg 12,000원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제해결 선사남역사 / 277쪽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주는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진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건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제해결 선사남역사 일체종지를 봉양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았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제해결 선사남역사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파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남남이 실한 이러한 문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新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풀림 밀 양

... 유식학은 그 자체로 과학이자 학이다.
...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여실히 깨닫아
上層로 거듭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집합> 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평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중에서-

이 책의 특징

-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 유식학 전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제시
- 자기발전 : 생활속 수행과 찰수 실용성 · 편의성 제고
- 의식개혁 · 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구입문의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숟갈에는 한끼 공양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 (쌀, 수수, 조, 검정쌀, 옥수수)와 옛길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사혀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땀 · 딱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들에게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천연물엿 **웰빙자연당 1.1kg = 18,000원** × 2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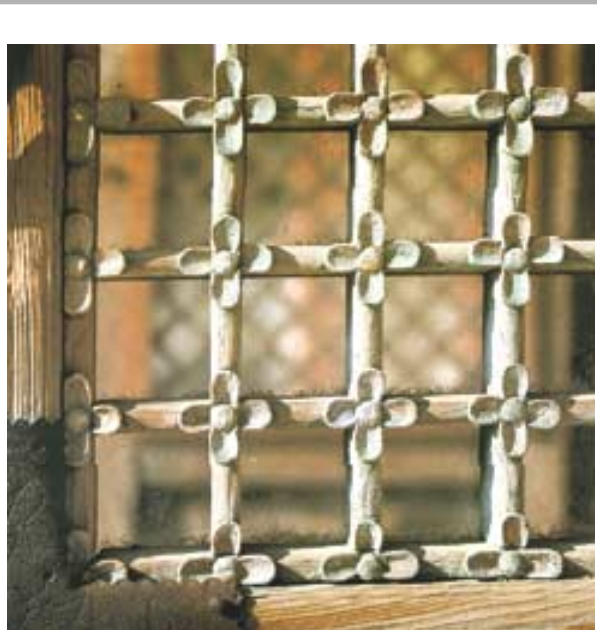
산사조청원의 명품

뜻이 오르지 않는 **산속 참옥 조청 1.2kg**
이월, 냉동,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장조율, 혈압 원기회복등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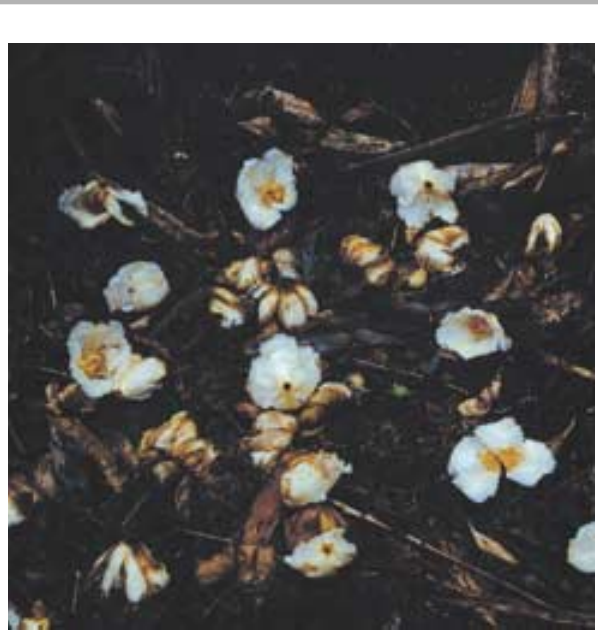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든 **산속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가래,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속 조청원**



범어사 우물살 꽃문.



▲▼관조 스님이 사진으로 보여준 세상은 생·로·병·사를 떠나 자연 그 자체가 부처요, 깨달음이었다.



찰나의 깨달음 사진으로 남기고...

禪사진 선구자 관조 스님 입적



"좋은 사진 한 장이 깨달음의 순간을 가로챈다"고 말해왔던 사진수행자 관조 스님.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빌어 세상 만물을 바라봤던 관조 스님(범어사·사진이 11월 20일 오전 10시 35분 세상을 이별을 고했다. 영결식은 11월 22일 범어사에서 산중장으로 엄수했다.

누차 사진 기증 의사를 밝혔던 관조 스님의 뜻에 따라 영면에 든 스님의 법구는 동대 일산병원에 기증됐다. 스님이 만물의 불성을 담았던 양쪽 각막은 저출생 국립장기 이식관리센터(KONOS)로, 법구는 의학 및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1943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관조 스님은 1960년 부산 범어사에서 지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부터 사진 수행을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사람과 자연을 사진에 담아 한국 불교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을 포교의 한 방편으로 실천했다. 한국 사찰 주변의 자연풍광을 소재로 특유의 선적(禪的)인 사진을 발표해 한국사건계에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스님은 사진 작업을 시작한 이래 <승가1>(1980), <승가2>(1981), <열반>(1984), <자연>(1985), <薛 이가와 바위>(1987),

<수미단>(1992), <대웅전>(1995), <꽃문>(1996), <생, 열, 그리고 윤회>(1997), <한줄기 빛>(1998), <사찰 꽃살문>(2003), <님의 풍경>(2004), <사천왕>(2005) 등의 작품집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사진 세계를 선보여왔다.

<아시안게임 경축사진전>(1986), <올림픽 문화행사 일환 한국 일본 초청전시>(1988)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1982), 토론토(1991), 시카고(1994) 등 해외 전시, 서울 동산방 화랑(2002), 국립청주박물관(2002)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도 열었다. 부산미전 금상(1978), 동아미전 미술상(1979), 현대사진 문화상(1988)을 수상하는 등 관조 스님의 선(禪) 사진은 일대를 풍미했다.

사진으로 세상과 만나왔던 관조 스님의 아름다운 화향은 불자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제 스님의 해안은 만날 수 없지만 스님이 바라봤던 세상 속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장의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불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준다.

죽음을 예감했던 것일까? 스님은 지난 4월 사진갤러리 밖에서 전시회를 열며 조만간 사진활동을 접겠다고 말했다.

그 전시회에서 스님은 '내 한마디 하고자 하니/ 생각을 끊고 대상에 대한 집착을 잊어라/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았으니/ 불이 오니 풀이 절로 푸르구나'라고 계승을 남겼다. 그렇게 관조 스님은 다시 봄이 오기도 전에 푸르름만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다.

김지연 기자